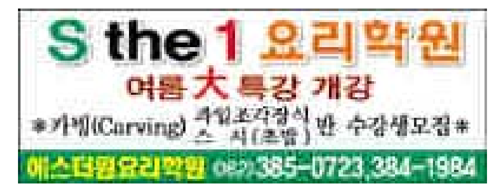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82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7월 31일 （음력 6월 18일） 화요일

아파트 관리비 최고 3배差

광주 H아파트 3.3㎡당 2,437원…M아파트는 984원

관리비 공개·표준내역서 사용 절실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상당수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여전히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동전기·수도료의 경우 단지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를 보일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면서 관리비 내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나 표준관리비내역서 사용 등 관리비 부과 방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사)전국아파트연합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 아파트 108곳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구 지원동 M아파트의 3.3㎡(1평)당 관리비가 984원(유선방송비, 오물수거료 등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내 주공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 학동 H아파트로, 3.3㎡당 2천437원에 이른다. H아파트는 또 유선방송과 오물수거료 등이 세대당 5천900원씩 부과됨에 따라 108.9㎡(33평형)의 관리비가 8만6천321원에 달한다. 여기에 세대별로 부과하는 가스·전기·수도료까지 포함할 경우 관리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광주는 H아파트 외에도 3.3㎡당 관리비가 2천원이 넘는 곳이 9곳에 달했다. 관리비 상위 아파트는 ▲북구 용봉동 D아파트(2천252원) ▲서구 화정동 K아파트(2천216원) ▲남구 봉선동 K아파트(2천213원) ▲북구 두암동 L아파트(2천184원) ▲동구 운림동 L아파트(2천141원) ▲남구 봉선동 M아파트(2천8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원동 M아파트를 비롯한 ▲남구 월산동 S아파트(1천50원) ▲서구 치평동 M아파트(1천165원) ▲북구 일곡동 L아파트(1천175원) ▲서구 풍암동 D아파트(1천214원) ▲서구 풍암동 J아파트(1천219원) ▲북구 용봉동 Y아파트(1천322원) 등이 비교적 관리비 부담이 적었다.

광주 아파트의 관리비 격차는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부과 내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동수도료의 경우 대부분의 단지에서 물탱크를 청소한 달에 누적 사용분을 합산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3.3㎡당 2원에서 139원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공동전기료의 경우 단지별로 5~6배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입주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북구 용봉동 D아파트는 공동전기료가 3.3㎡당 296원이 부과되면서 광산구 신가동 W아파트(50원)보다 6배나 부담이 컸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한재용 지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역서를 자발적으로 보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실제 광주의 관리비 격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본다"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비 내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나 표준관리비내역서 사용 등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다 살해된 고(故) 배형규 목사의 시신이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거쳐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샘병원 영안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질 살해 시작하겠다"

탈레반 '죄수 석방' 압박…최악 국면 치달아

故 배형규 목사 시신 도착

30일 탈레반에 억류된 한국인 22명에 대한 석방 협상시한이 두 차례나 지났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일부에서는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상황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는 30일 1차 협상시한인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이 지난 후 한 탈레반 사령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완전 실패했다. 인질들을 살해하기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 역시 이날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으로 통보한 협상시한이 경과했다며 인질 일부 또는 전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AP통신은 탈레반은 1차 시한에서 4시간 지난 오후 8시 30분까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9일 백종천 대통령 특사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을 만나 인질과 탈레반 죄수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외교력을 통한 협상도 교착상태여서 인질들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프간 정부 협상단 대표 와히둘라 무자디디는 탈레반의 주장과 달리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졌다며 이날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프간 정부와 한국 정부가 별도의 노선을 통해 탈레반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탈레반과의 접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현지 활동 계획에 대해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상황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당국자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된 피랍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19일 탈레반 조직에 납치돼 살해된 고(故) 배형규(42) 목사의 시신이 30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내 대한항공 화물청사에 도착했다. 배 목사의 시신은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이 인수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연합뉴스

F1경주장 오늘 '첫삽'

기공식은 9월10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공사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1시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경주장 예정부지에서 안전공사 기원제를 시작으로 오는 2010 첫 F1대회 개최를 위한 경주장 공사에 들어간다.

도는 F1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특히 지난 24일 경주장 예정부지인 간척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림부로부터 우선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준비가 마무리 됐다.

도는 오는 9월 10일께 대대적인 기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며 행사 이전까지 경주장 공사 진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과 현장 사무실 건설, 지반조성 등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F1 경주장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무난하게 마무리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최근 영암군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 협의 요청에 대해 소음저감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협의를 끝냈다.

환경청은 외부서킷에 대해 주변에 흙을 쌓아 만든 소음방지벽 '마운딩'과 소음 흡수용 나무를 심고 대회 때마다 임시 방음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